

농어촌진흥공사 국제협력처

천 상 진 (해외사업부 과장)

1. 사업내용

농진공의 국제협력사업은 크게 해외기술용역사업, 해외기술지원사업, 외국인 교육훈련사업 및 해외농업 투자 환경조사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해외기술용역사업은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나 UNDP, FAO 등 UN기구 및 우리 나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개발원조 또는 차관자금으로 지원하는 개발도상국의 각종 농업관련 개발사업의 사업발굴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조사 설계, 공사 감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기술용역업무를 수주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 수주를 위하여 사업 발주기관 및 수혜 국가에서 발간하는 개발 사업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사업정보를 입수하고 발주기관이나

수혜정부에 사업참여 관심표명을 하는 동시에 수주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1967년 베트남에 한국농업사절단 파견을 효시로 발전을 거듭, 지난 31년 동안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나,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농업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타당성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 농장개발, 물관리, 홍수조절, 관개·배수, 습지개발, 지하수개발, 사업평가, 영농지도 등 20여개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용역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997년 현재 43백만\$에 달하는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특히, 한국의 축적된 우수한 농업개발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기술지원사업은 국제기구나 우리 정부(외무부 한국국제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농업개발 관련전문가를 국제기구나 개도국에 파견하여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년대 초반까지는 UNDP나 FAO에 우리 직원을 파견하여 개도국의 농업개발을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우리 정부 대외무상 원조자금의 증가에 따른 기술지원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사 전문가들이 개도국의 농업개발사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과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우리 기술진을 파견시킴으로써 정부로서는 정치 외교적인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준 높은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표 1. 해외기술용역 실적('72~'98)

국가별	지구수	용역비(천\$)	인/월	용역기간
13국	58	42,843	4,523	'72.10~'99.07
○ 완료지구	55	42,255	4,487	'72.10~'97.12
· 베트남	7	1,100	187	'72.10~'96.12
· 네팔	2	562	22	'76.04~'95.11
· 방글라데시	6	3,143	405	'76.08~'87.08
· 아르헨티나	1	1,007	164	'78.08~'82.11
· 인도네시아	31	30,596	3,223	'76.08~'97.08
· 브루나이	3	985	100	'85.07~'87.12
· 파키스탄	1	88	12	'87.05~'88.05
· 가나	2	4,169	343	'88.08~'92.08
· 말레이시아	1	434	18	'92.02~'92.08
· 라오스	1	171	13	'96.11~'97.05
○ 계속지구	3	588	36	'98.02~'99.07
· 태국	1	300	13	'98.02~'99.02
· 라오스	1	168	15	'98.09~'99.07
· 파라과이	1	120	8	'98.09~'99.0

표 2. 해외기술지원 실적('67~'97)

국 가 별	지구수	인	지원액(천\$)	지원기간
19국	26	106	4,381	'67.03~ '97.12
· 베트남	3	62	1,063	'67.08~ '75.04
· 이디오피아	1	1	34	'79.08~ '80.12
· 가나	3	4	42	'82.10~ '87.09
· 네팔	1	1	7	'83.11~ '84.01
· 코스타리카	1	1	4	'84.03~ '84.04
· 케냐	2	4	55	'84.07~ '87.09
· 가봉	1	1	4	'84.07~ '84.09
· 자이레	1	1	4	'84.07~ '84.09
· 베네주엘라	2	4	22	'85.12~ '86.12
· 리비아	1	4	18	'85.04~ '85.05
· 브루나이	1	3	10	'85.09~ '85.10
· 기네비소	2	2	18	'96.11~ '89.02
· 우간다	1	1	10	'88.10~ '89.01
· 라이베리아	1	5	655	'88.11~ '90.05
· 중국	1	1	10	'90.04~ '90.06
· 인도네시아	1	2	-	'91.11~ '91.11
· 서사모아	1	1	15	'94.10~ '94.12
· 태국	2	2	648	'93.07~ '97.06
· 나이지리아	1	1	14	'95.11~ '95.12
· 파라과이	1	2	800	'97.07~ '97.07
· 엘살바돌	1	2	700	'97.09~ '97.09
· MRC	-	1	248	'93.07~ '97.12

할 수 있으며, 공사입장에서는 해외기술용역 진출에 필요한 사전 시장조사 및 파견국의 각 분야 인사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해외기술용역시장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교육훈련사업은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용역단이나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개도국의 농업개발 관련 공무원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농진공에서 교육 훈련시키는 것으로 짧게는 4~5일에서

긴 것은 1개월 과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술용역사업 초기에는 용역사업비에 포함된 기술훈련비로 용역 시행국가의 대총요원을 농진공에서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에 발맞추어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정부의 대외 경제협력차원에서 우리 정부 자금으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개도국의 공무원 등을 초청 교육하고 있다.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내 저개발국 19개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세계은행(W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금융기관, FAO, ASEAN 및 메콩강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세계 도처 58개국 농업기술자 1천여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업개발분야 기술이전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위상강화와 국가간 기술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조사와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른 조사 및 민간기업 해외농업개발 기술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해외의존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제곡물 가격파동에 대비키 위한 해외식량기지를 구축하고, 민간의 해외농업 투자희망지역 및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조사

표 3. 외국인 교육훈련('76~'97)

권역별	정부대외기술 공여훈련	동남아개도국가 협력훈련	FAO국제농업용 수관리워크샵 및 훈련	외국인 수탁훈련	대총요원 훈련	한·아세안훈련	합 계
계	51국186명	9국78명	14국37명	16국564명	3국85명	9국111명	58국1,061명
· 아시아	14국86명	9국78명	14국37명	13국548명	2국63명	9국111명	20국923명
· 중동	8국22명	-	-	1국10명	-	-	8국32명
· 아프리카	17국53명	-	-	1국5명	1국22명	-	17국80명
· 중남미	11국21명	-	-	1국1명	-	-	12국22명
· 동구권	1국4명	-	-	-	-	-	1국4명

지원을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촉진, 민간기업의 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겪는 정보와 기술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있다.

1997년 1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농지조성, 수리·수문, 관개, 지질, 토양, 농업경영 등 해외농업투자 전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해주 3개 농장 38,560ha 및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주 12,000ha의 농업투자환경조사를 마친 바 있다.

2. 국제협력사업 전망

1992년 이후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는 해외사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기술용역 발주 물량의 급격한 감소와 용역진출 대상국들이 자국 용역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 용역단의 참여 물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기술용역사업의 국제 수주경쟁은 날로 치열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해외사업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당면 과제인 용역 발주물량 감소와 이에 따른 국제간 수주경쟁 치열, 해외파견 전문인력 부족 및 해외근무 기피, 해외사업 전망 불투명, 용역사업 수익성 하락 등

사업 여건상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사업의 지속적 시행의 필요성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위 선양 및 공익 기관으로서의 임무 수행 등 국제협력차원에서 차지하는 해외사업의 비중을 고려하여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에서는 그간 지역적으로 인도네시아에 편중되었던 용역사업을 탈피하고 남미 파라과이, 라오스, 태국 등 용역시장 다국화와 관개·배수 위주의 사업분야에서 지하수개발, 소수력발전, 농장개발, 환경분야 등 진출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해외기술용역사업 확대를 끊임없이 추진하여 왔다.

1990년을 정점으로 농진공의 해외사업은 사업 규모와 경영 수지면에서 과거에 비하여 크게 위축되었고 최근 수년간 국제적 용역단가 인상률에 비해 국내 사업 원가요소의 인상요인이 크게 증대됨으로써 사업 적자가 지속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왔다. 그러나 농진공의 국제협력처에서는 1998년을 해외사업 원년의 해로 삼아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002년을 경영활성화 목표년도로 설정하고,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해외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해외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공사 고유의 수익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